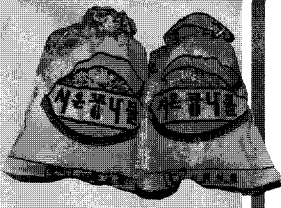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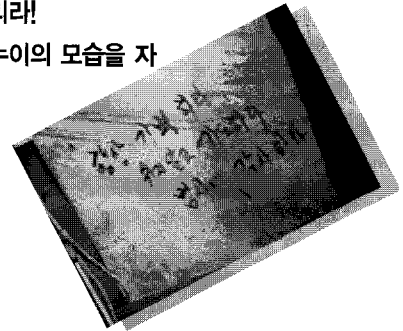




함께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정하다.

희망과 보람이 꼬부라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말다툼 한번, 큰소리 한번 안해 보았으리라!
부부의 모습에서 오랜 친구의 모습을, 사이좋은 오누이의 모습을 자
연스레 보게 되는건 왜 일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온에 오면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43번 국도를 따라 용인방향으로 가다보면 경기도 광주를 지나 오폐면이 나온다. 때마침 찾아간 그곳 면소재지 입구엔 "광주시 승격"이라는 현수막이 나를 맞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이 시 승격을 자축이나 하듯이 우쭐거리며 위아래로 춤을 추고 있었다. 새로 뚫린 큰 길을 건너 경운기 한 대가 다닐수 있는 논둑길 옆으로 비닐 하우스가 즐비하였다. 비닐 하우스에 고개를 들이 밀자 후덥지근하고 끈끈한 열기가 얼굴을 친다. 푸룽푸룽한 상추며 썩갠이며 그곳엔 또다른 계절이 있었다.

질퍽한 논길을 조금더 가면 두세 걸음에 건널수 있는 작은 다리가 있고 그 다리 건너에 시온 두채 재배사가 있었다. 웬지 흙 투성이 신발로 깨끗한 다리를 밟고 건너기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배사 입구엔 눈빛이 선한 진돗개와 누렁이 그리고 강아지 2~3마리가 더있었다. 낯선 인기척에 몇번 짖더니 이내 꼬리를 흔들었다.

요놈들 반기는 품이 주인 심성을 알만했다. 아니나 다를까 홍감사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 나를 반겼다.

착해 보이는 멍멍이들이 네 다섯 마리
요놈들도 시온두채 가족들이다.

홍기수 회원은 86년 10월에 두채업을 시작하였다.현재는 협회 감사직을 맡고 있다.

10남매(3남7녀)의 맏형으로서 결혼당시 막내 동생은 4살 정도 였다고 한다. 아직 동생 셋은 미혼이어서 은근히 결혼시킬 걱정도 하였다. 이정도 되면 부모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얼마전 경기 동부지방 취재때만 하여도 동생이 같이 도와주고 있었다. 지금은 부인과 홍기수 감사 둘이서 일을 하고 있었다.

15년이 넘는 경력 때문일까? 재배사일과 배달, 주문, 수금등 손발이 척척맞는다.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인가보다. 큰딸이 고3이고 작은아들은 고1. 여느 아이들 같으면 수험생이라고 부모 힘들게 할텐데 딸아이와 작은아들이 엄마, 아빠를 이해해주고 잘 따라줘서 무척 고맙단다.





집은 성남에 따로 있지만 재배사 한쪽에 마련된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새벽4시에 기상해서 일을 시작하면 보통 아침 9시쯤 되면 배달을 마친다. 다시 재배사에 왔다가 오후 3시쯤 수금, 주문관계로 시장일을보고 저녁 7시쯤 하루 일과가 끝난다고 하였다.

이곳 오포에서도 벌써 5년째다. 오포에 오기전 광주에 있던 재배사는 제법 크고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대공100m, 100평넘는 공간, 자동화시설들 뜻하지 않는 임대기간문제로 시설비가 투자된 상태에서 그곳을 뜨게 됐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두채업을 하는 사람들 끼리는 통하는 말이 있다.

"꼬부라 진다" 한가마니 담으면 두가마니 만든다는 뜻이다. 물론 옛날 꼬부랑 할머니



일이 즐거울 수 있는 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니(?) 담배피던 시절 얘기다. 지금은 그야말로 인건비나 겨우 빼먹는 꼴이다. "두채업을 하면서 보니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단합이 잘되지 않아 생기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원료 콩의 공동구매문제나 정보교류부족, 한정된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 그리고 지나친 가격 경쟁, 이는곳 생산성 저하, 품질의 저하를 가져와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는 꼴이되서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업자들에게 되돌아온다고 홍감사는 강조한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최소한의 친목과 유대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을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희망과 보람이 꼬부라질 것 같다.

재배사를 나서는데 진돗개와 누렁이가 이번엔 먼저 꼬리를 흔들더니 나중엔 아쉬운듯 찾아왔다. 또다른 계절을 빠져나올때까지... 🐾



위/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아래/ 산성을 찾은 부부의 모습.
두분의 님은 모습에서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알것 같다.



시온두채 전경
명명이 뛰놀기 좋고, 평온함이 배어있는 시온두채를 멀리서 한컷 찍었다.
저 예루살렘성전(?)에서 이름을 따왔을까... 한가로운 시온두채를 잠~시 응시해 본다.